



##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박주현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rona19' News Frame Based on Ideological Orientation of Media

Park, Joo-Hyun\*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Junbuk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need for various studies on the media's tendency to report on new infectious diseases in the face of COVID-19 as a potential national crisis, this study analyzed the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sources of information, formal frames, and content frames of news articles to examine how the four major news media (Chosun Ilbo, Dong-A Ilbo, Hankyoreh, and Kyunghyang Shinmun) dealt with the issue of the COVID-19 risk. In particular, we looked at the risk issue of COVID-19 to see if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reporting depending on the ideological orientations of either conservatism or progressivism. According to the analysis, COVID-19 reporting patterns showed that all four dailies had articles reporting with the case-oriented frame in straight form, and sources of information were overwhelmingly dependent on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reports using a 'responsibility attribution frame' was the greatest, and the content frame differed depending on the newspaper's ideological orientation. In many articles, conservative newspapers focused mainly on conflict and danger frames, unlike progressive newspapers. On the other hand, progressive newspapers, unlike conservative newspapers in many articles, focused mainly on moral evaluation frames, prevention/dealing frames. Overall, however, there were fewer articles involving in-depth analysis of the risk issues regarding the new infectious disease of COVID-19, which was not well known based on various sources, and the percentage of articles reported in terms of prevention and response to COVID-19 was low. In other words, in many articles, conservative newspapers focused on conflict and risk factors unlike progressive newspapers, while progressive newspapers reported a lot of moral evaluati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level reports, unlike conservative newspapers. Also, conservative newspapers used more exaggerated or provocative expressions than progressive newspapers, which could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media and increase readers' anxiety, according to the case study. As such, in reporting on the risk issues of

---

\* juhyun257@hanmail.net

COVID-19, newspapers were found to differ in frame and content depending on their ideological orientation. The media (Chosun Ilbo, Dong-A Ilbo, Hankyoreh, and Kyunghyang Shinmun), which cover and report on new infectious diseases that are fast-spreading, such as COVID-19, and are widely popular around the world, need to apply careful, in-depth, and professional approaches. The media needs to improve its reporting for prompt prevention and response. It is hoped for that the stud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local media to expand their research into reports of new infectious diseases.

**Keywords:** Corona19, News frame, Ideology, Emerging infectious disease

# 1. 문제제기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2019년 12월 처음 발생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인해 2020년은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큰 위기를 맞이했다. 단순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초기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확산 속도와 확산 지역이 빠르고 광범위했다. 2020년 1월 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감염 질환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sup>1)</sup>'라고 밝힘에 따라 병원체가 확인됐지만 이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져 급기야 2020년 1월 30일을 기해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했다. 위협적인 신종 감염 질병 환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WHO는 2020년 3월 11일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신종 감염질환은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위협적이었다.

발생 초기에 '우한 폐렴'이라고 명명한 감염 질환은 WHO가 2015년부터 '지리·위치, 사람, 동물 또는 식품, 문화, 산업, 직업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부르다가 2020년 2월 11일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명칭이 확정되었다.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월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오인규, 2020).

코로나19는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들이 발생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내 언론사들은 초기부터 연일 각종 기사를 보도했으나 뉴스 이용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할 만한 자극적인 표현과 오보가 줄을 이었다. 심지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 등까지 가세함으로써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집단 발생 국가나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을 남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이 위기 상황에서 전달하는 정보나 뉴스는 뉴스 이용자들이 위험을 인식하는 데 직접

---

1)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ICTV, 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는 2020년 2월 11일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SARS-CoV-2'로 명명했다.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언론은 불확실한 정보나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일수록 신중한 자세로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한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과도한 해석을 하거나 뉴스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남발하거나 과장된 보도를 하게 되면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초기부터 대유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병원체에 대해 밝혀진 정보가 적고, 확산 속도가 빠른 위험 이슈일수록 언론은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특히 신종 감염병과 같은 위협적인 질병에 관한 보도는 초기부터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정보의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자세를 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언론은 초기에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와 혐오 표현 등으로 혼란과 불신,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3월 4일 발표한 '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보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나친 속도 경쟁으로 인한 부정확한 보도', '공포를 조장하는 자극적인 보도', '불필요한 피해자 신원 노출 및 혐오 확산' 등을 꼽았다(김여라, 2020). 따라서 언론은 신종 감염병 보도를 함에 있어서 팩트 체크(fact check)와 교차 검증이 필요하지만 특정 전문가의 개인적 견해나 통계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추측하거나 과장하는 보도를 일삼으며, 혐오 표현을 확산시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위험 이슈에 대해 국내 언론들이 초기의 보도 과정에서부터 보여준 정보 전달과 속도경쟁이 언론의 기능을 다했는지 고찰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언론의 초기 보도 태도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의제설정 과정에서의 프레임 또는 이념성 개입 여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즉, 코로나19 보도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이 재난상황임에도 정파적 성향에 따라 선정적이고 편향된 보도를 하는 한국 언론의 현실과 재난보도의 준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선정성과 이념성 개입 여부를 분석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감염병 보도준칙'에는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언론인도 다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이 전문에 포

함되어 있다(김달아, 2020).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국내 언론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잠재적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기사의 정보(취재)원, 형식적 프레임, 내용적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국내 4개 일간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코로나19가 발생-확산-대유행 상태를 보인 신종 감염병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1기부터 제3기까지 3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내용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 기간은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시점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제1기(발생기),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를 제2기(확산기), 코로나19의 대유행기 상태를 보인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제3기(대유행기)로 정하고, 이 기간인 61일을 모두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언론 보도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하게 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내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한 연구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이론적 논의

### 1) 신종 감염병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 위험 보도

건강과 일상생활, 나아가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을 종종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종 질병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김영욱, 2006).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감염병이 중국에서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그러하다. 코로나19는 2020년 초부터 빠르게 확산되었고, '코로나 포비아(코로나 공포증)'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전 사회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자연적 재해로 인한 재난과 각종 질병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Risk society)'라고 주장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Beck, 1992)은 위험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꼽았다.

벡이 강조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면, 전문영역과 사적영역 간의 원활한 소

통을 돕고 공적 영역에서 위험 사례가 논의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을 형성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이예리, 2011). 백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오늘날 위험, 위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전문가의 견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여론시장에서 공중, 전문가, 규제기관 등의 입장이 서로 혼재하기도 한다.

하버마스(Habermas, 1984)는 직접적으로 '위험'이라는 주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현대 사회의 발전과 확장에 수반되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눈여겨보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기든스(Giddens, 1990/1991)는 지구상의 한 곳에서 발생한 위험이 전 세계적 인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 지구적 위험에 관한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백과 유사한 현대 사회의 위험의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레이스(Leiss, 1996)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약 20여 년 간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혁신 과정을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한 바 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하여 코벨로와 슬로빅(Covello & Slovic, 1986)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관련 집단들 간에 신체적·환경적 위험의 수준, 위험의 중요성이나 의미, 위험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결정·행동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밀레티와 피츠펙트릭(Mileti & Fitzpatrick, 1991)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위험에 대해 교육 또는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고, 예방행위를 촉구하기 위해 경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영진(2000)은 '다양한 사회집단 간에 위험의 크기와 성격, 의미, 대응방안 등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 또는 그 과정'으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기존의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주고받는 차원이 아닌 백이 제시한 위험사회의 본질 중 하나인 안전과 위험의 충돌을 완화시켜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안은영, 2016).

이처럼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은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특정 위험에 직접적인 경험 없이 있는 개인들이 위험을 이해하는데 있어 미디어와 같은 외부적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위험 관련 정보에 대해 갖는 높은 관심은 위험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김원제·이창주·하연희·조항민, 2009).

언론의 위험 보도에 관하여 렌, 번스, 카퍼슨, 카퍼슨, 그리고 솔빅(Renn, Burns, Kaperson, Kasperson, & Slovic, 1992)은 언론에서 어떠한 정보를 제거하고 제외하는지에

따라 수용자의 위험인지가 달라지며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싱어와 엔드레니(Singer & Endreny, 1993/2003)는 신문과 같은 매스 미디어에 의한 위험 정보는 특정 종류의 재난에 대한 지식과 이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언론의 위험 보도는 수용자들의 위험인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날 언론을 통해 전달하는 위험 보도는 종종 '선정적이거나 비과학적인 보도로 변질되어 사회 불안을 부추길 뿐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종화·유홍식, 2012; Hornig, Walters, & Templin, 1991).

언론의 위험 보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언론이 위험 이슈의 원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의 규명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듀도, 달스트롬, 그리고 브로자드(Dudo, Dahlstrom, & Brossard, 2007)는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연구에서 정보의 질이 수용자들의 위험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국내의 선행연구 사례로 이민규와 이예리(2012)는 '국내 일간지의 구제역 보도 연구'를 통해 '취재원의 범위제한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단순 사실 위주의 피상적 보도와 심층보도의 부족이 재해 및 재난보도의 취약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정춘(1996)은 '위험 보도 관련 연구'에서 '새롭게 나타난 위험이나 상대적으로 지각하기 어려운 위험일수록 미디어는 위험 예방과 위험 감소를 위한 국민 계몽의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언론이 전달하는 위험정보의 현저성에 따라 뉴스 수용자들이 받아들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신문에서 보도하는 위험 이슈의 경우에는 기자의 개인적 관점과 전문성 여부가 위험 보도 전달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안은영, 2016).

## 2) 감염병의 역사와 감염병 보도의 연구 사례

인류는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한 고대시대부터 감염병과의 전쟁을 벌여왔다. 인류가 가축을 키우기 시작한 이래 바이러스는 종종 인간과 동물사이를 오가며 인류의 면역력을 시험에 빠뜨리곤 했다(김효경, 2010). 초연결 사회에 진입하면서 신종 감염병은 국가 간 장벽을 허물며 쉽게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5월 20일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메르스가 36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로써 한 달 반 남짓 한국 사회는 메르스 공포로 휘청거렸다(안은영, 2016).

Table 1. The History of Infectious Disease

Occurrence year	Occurrence area	Infectious disease	The number of deaths
165~180	Europe, West Asia, North Africa	Smallpox	5million
541~750	Europe	Eustinian infectious disease	25million
1347~1351	Europe	The black death	75million
1519~1521	Mexico	Smallpox	5-8million
1633	America	Smallpox	20million
1816~1826	Asia, Europe	Cholera	15million
1852~1860	Russia	Cholera	1million
1860~1894	China, Indonesia, Hong Kong	Great Plague	10million
1918~1919	All over the world	Spanish influenza	20-50million
1918~1922	Russia	Typhus	3million
1957~1958	All over the world	Asian influenza	2million
1968~1969	All over the world	Hongkong influenza	1million
1980~The present	All over the world	AIDS	39million
2009~The present	All over the world	H1N1(New type flu)	284thousand 5 hundred
2012~The present	The Middle East, Asia, Europe	Mers	525

Note. 'Virus...humanity threat'(Hankyoreh, 2015, 7, 8). Reconstitution.

그러나 메르스는 '미약한 경고'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종 감염병을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급증하는 신종 감염병의 위협은 '인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전정윤, 2015). 이처럼 질병으로 인한 위협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Table 1〉에서 보듯이 감염병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래된 역사에서부터 인류를 위협해 왔다. 감염병은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발생하게 하면서 인류사회에 매우 위협적인 질병으로 존재해왔다(〈Table 1〉 참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언론학과 보건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특히 헬스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 관련 보도에 대한 연구는 대중의 위협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뉴스 효과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송해룡·조항민, 2015). 국내에서 질병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를 대상으로 언론보도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주영기와 유명순(2011)은 신종플루에 대한 신문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진단과 사후 프레임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신문들이 신종플루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보도하면서 예방대책을 다룬 프레임보다는 피해 확인을 중심으로 한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환자 발생률과 뉴스 보도량의 양적인 비교분석 결과, 환자의 증감에 따른 보도량에는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연구결과에서 주장했다.

또한 허용강, 차수연, 서필교, 김소영, 그리고 백혜진(2015)은 2014년 전 세계적으로 위험 이슈가 되었던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를 국내 주요 일간지 보도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이 연구는 신문들이 ‘감염병 보도준칙’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에 관해 내용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국내 주요 일간지의 에볼라 관련 기사들 중 절반에 가까운 기사들이 정확한 정보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특성 및 관리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지침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정의철(2008)은 ‘에이즈 프레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언론들이 ‘공유된 인식과 해석의 틀’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과 해석의 틀’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처럼 감염병 등 질병 보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질병의 확산, 피해 상황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언론이 질병의 예방법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환경감시 기능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안은영, 2016).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위험 상황에서 국내 언론들이 프레임을 통해 코로나19 기사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보도하고, 질병 확산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하겠다.

### 3) 언론의 이념성과 뉴스 프레임

베넷(Bennett, 2007)은 ‘어떤 사건에 대한 언론의 시각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는 ‘기자들은 개인의 가치나 철학은 물론 언론 조직의 문화와 관행, 정치경제 권력 등 외부 압력, 거시적으로는 이념적 가치에 따라 같은 문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언론들 중 신문사들의 이념적인 성향은 두 부류 즉,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나뉘어져 왔다. 보수와 진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해되는 개념적 구분 방식이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연구된 선행연구들의 보수와 진보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보수주의는 사회의 현 상태를 가능한 유지하려는 태도와 정향을 뜻하며, 진보주의는 인간의 정신과 문명이 역사적으로 보다 더 완전하고 이상적인 상태로 발전해 나아가고 보는 신념체계로 이해해 볼 수 있다(김경미, 2009; 최현주, 2010).

한국 언론에서 나타나는 이념성은 언론사와 유사한 이데올로기적 지형에 있는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병행(parallelism)'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당 정파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영옥·임유진, 2009).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형태로 교묘한 표출을 일삼는 정파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파적 편향성 보도는 다른 정파적 속성을 가진 언론, 시민, 정당들과 적대 관계를 갖게 한다. 더불어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를 통해 언론의 이념적으로 소비하려는 시민 집단의 정파적 편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결국 이념적 편향성을 띄는 언론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사회적 위기와 다툼과 같은 악순환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김영옥·임유진,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의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성향은 보도의 태도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며 이러한 차이는 그동안 많은 언론보도 기사의 프레임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민규와 김수정(2006)은 연구에서 호주제 폐지에 관한 신문들의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호주제를 남섬 중심사회의 전통적 관습으로 보며 전통 유지를 강조하는 프레임을 보였으나, 이외는 대조로 한겨레는 호주제를 사회변화 및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프레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스노우와 벤폴드(Snow & Benfold, 1988)는 연구를 통해 '프레임은 관련 이벤트나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를 하였다. 이들은 의미가 '있고 없고', '크고 작고'를 판단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할 정도로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은 프레임과 의미와의 관계를 규정짓는데 노력해 왔다. 양문석(2001)은 연구에서 '프레임이 의미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뉴스 미디어와 수용자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하위 개념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뉴스의 보도와 뉴스의 이해로, 프레임은 뉴스를 보도하고(presenting) 이해하기(comprehending) 위한 것'으로 보았다.

프레임과 관련해서 엔트만(Entman, 1993)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선별과 부각으로 보았다. 즉, 프레임은 인지된 현실의 몇몇 측면을 선별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에 대한 성격 규정, 원인해석, 윤리적 평가, 대안제시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선별한 측면들을 텍스트 내에서 더욱 돋보이게 부각시키는 것이다(양문석, 2001). 즉, '사건이나 이슈를 프레이밍(framing)하여 제시하는 것은 뉴스 수용자가 이들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Price, Tewksbury, & Powers, 1995, 1996)는 주장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디어 프레임에 대한 정의를 연구자별로 미디어 프레임의 정의와 성격 그리고 미디어 프레임의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디어 프레임은 '어떤 이슈를 선별하고 그 이슈의 특정한 측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강화함으로써 수용자들이 그 측면을 인지하고 그 측면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석 및 평가하도록 구성된 핵심 아이디어'로 정리할 수 있다(양문석, 2001).

이처럼 프레임은 뉴스 생산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메시지의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뉴스가 현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특정 사건이나 이슈를 일정한 방식으로 의미 짓는 틀이다(임미영·안창현·감규식·유홍식, 2010). 따라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뉴스 프레임은 ‘언론이 수용자들에게 어떻게 현실을 전달하는지, 수용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어떻게 현실을 이해하는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하여 언론이 어떤 틀로 보도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며, 특정 관점에서 비롯된 언론 보도는 뉴스 수용자의 사건에 대한 이해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연희, 2015).

이와 같이 프레임은 뉴스 분석의 중요한 틀이며, 이러한 프레임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뉴스 프레임 개념을 초기에 정의한 고프만(Goffman, 1974)은 프레임을 ‘수용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올바르게 지각 또는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석적 스키마’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는 세계를 묘사하는 틀’이라고 규정지음으로써 뉴스 프레임의 중요성과 기능을 강조했다. 터크만은 프레임을 ‘언론사들이 뉴스 제작과정에서 선택과 배제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하는 현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는 달리 기틀린(Gitlin, 1980)은 프레임에 대하여 ‘현실에 대한 해석과 선택, 강조, 배제, 축소를 반복함으로써 현실을 유의미하게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엔트만(1993)은 프레임을 ‘언론이 현실의 특정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현저하게 강조함으로써 수용자들의 해석과 평가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들마다 약간씩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프레임은 현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어떤 특정 면을 부각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수용자가 해석하고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기준으로 요약할 수 있다(임미영 외, 2010). 이러한 뉴스 프레임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는 프레임을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프레임에 관한 연구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으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다. 연역적 방법은 기존의 정형화된 프레임 틀이나 연구자들이 만들어 표준화된 프레임 지표에 따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귀납적 방법은 개별 이슈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 가능한 모든 프레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 연역적 방식의 대표적 연구 사례로는 세메트코와 발켄버그의 ‘5대 프레임을 이용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존의 다양한 프레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갈등 프레임’, ‘책임 귀인 프레임’, ‘경제적 중요성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인간 흥미 프레임’ 등으로 분류하였다. 아이엔거와 사이먼(Iyengar & Simon, 1993)은 기사의 형식적 측

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 중심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 중심적 프레임(thematic frame)'으로 분류하였다.

사건 중심적 프레임은 '특정 이슈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례 또는 일회적인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뉴스'의 틀을 말하며,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공공 이슈를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일반적인 결과나 조건 또는 통계적 증언 및 증거 등을 강조하는 뉴스의 틀'에 해당된다. 보도 형식이 다양한 사회 구조적 맥락 속에서 각 사례에 대해 심층적인 원인 진단 및 대안 제공이 포함된 기사가 이에 해당된다(유승현·황상재, 2006; 임양준, 2009).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프레임 분석을 통해 국내 언론이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위기 상황을 어떤 프레임으로 조명했는지 확인하고 국내 언론들이 위험 이슈에 직면했을 때 초기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위험 이슈가 장기화 될 경우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뉴스는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 아닌 구성된 현실, 프레임으로 존재한다. 프레임은 언론이 이슈 규정, 인과관계 설명, 도덕적 평가, 대응책 제시를 할 수 있는 틀이다(김영옥·안현의·함승경, 2015).

따라서 국내 4개 종합일간지에서 보도되었던 코로나19 기사의 정보(취재)원을 분석해 뉴스보도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황의 국면별 프레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언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보(취재)원과 프레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코로나19 이슈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정보(취재)원은 무엇이며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코로나19 이슈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형식적 프레임은 무엇이며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코로나19 이슈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내용적 프레임은 무엇이며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기간

이 연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국내 4개 일간신문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이 신문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수적 성향의 대표적 언론사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진보적 성향의 대표적 언론사로 명칭되고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이들 4개 신문사의 이념적 또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선정했다(박주현, 2007). 신문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표적 보수신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대표적 진보신문으로 각각 구분되어 왔기 때문이다(박기수, 2011; 최현주, 2010).

또한 이들 신문이 우리나라 일간신문의 보도경향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수적 성향의 신문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진보적 성향의 신문으로 분류해 분석을 하고자 한다.

분석 기간은 코로나19가 발생-확산-대유행 상태를 보인 신종 감염병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1기부터 제3기까지 3단계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상황을 낳은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대유행의 단계별로 언론의 보도 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위험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의 언론의 역할 수행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국내 첫 환자 발생 및 2·3·4차 감염자 발생,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하기까지의 과정에 따라 국면을 3기로 나누었다.

코로나19 기사 분석 기간은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시점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제1기(발생기),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를 제2기(확산기), 코로나19의 대유행기 상태를 보인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제3기(대유행기)로 정하고, 이 기간인 61일을 모두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Table 2〉 참조).

Table 2. The Phase Classification of Analysis Period

Classification	Period	Main contents
First stage (Developmental stage)	2020.1.20.~2020.2.18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rona19 occurred in Korea, the risk alert level of domestic infectious diseases changed from 'attention' to 'caution'
Second stage (Spread stage)	2020.2.19.~2020.2.29	Corona19 spreads to local community, Korean first teenage infectious patient appeared
Third stage (Interpandemic stage)	2020.3.1.~2020.3.20	Confirmed cases of Corona19 occurred all over the world, WHO declared 'Pandemic'

코로나19 발생 과정부터 확산 및 대유행기의 상황을 감안하여 설정한 1기에서 3기까지의 자세한 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발생기(제1기) : 2020년 1월 20일~2020년 2월 18일, 제1기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0까지로 정하였다. 이 시기는 코로나19 국내 첫 번째 환자(중국인 여성)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된 시점이다.
- ② 확산기(제2기) : 2020년 2월 19일~2020년 2월 29일, 제2기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국내 최초로 10대 감염 사례인 32번째 확진 환자(여성)가 발생하는 등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33~39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19일부터 확진자가 하루에 813명이 증가해 전체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으며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 마스크 대란이 심화되었던 2월 29일까지로 정하였다.
- ③ 대유행기(제3기) : 2020년 3월 1일~2020년 3월 20일, 제3기는 정부의 코로나19 전략이 전면 수정되어 중증 환자만 병원 입원 치료를 결정하는 등 병증을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의 4단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1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3월 11일 이후 확진 환자가 전 세계, 전 지역 사회에서 널리 유행하던 2020년 3월 20일까지로 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는 4개 신문사의 각기 독립된 기사(쪽지)를 분석 단위로 하였으며, 분석 대상이 된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 해설 기사, 인터뷰, 기획·특집 기사, 사설, 칼럼·논평 등을 포함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기사검색 서비스 기능인

빅카인즈(BigKinds)와 해당 신문사들의 홈페이지 뉴스검색 서비스 기능을 활용했다. 빅카인즈는 국내 신문, 방송 등 54개 주요 언론사의 최신 뉴스가 매일 수록되며 뉴스 검색, 뉴스 속 발언 내용, 연관어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능이 제공된다. 빅카인즈의 뉴스검색 서비스에 참여하는 54개 언론사는 중앙 일간지(11개), 경제지(8개), 지역 종합일간지(28개), 방송사(5개), 전문지(2개) 등이 포함돼 있다.

자료 수집은 빅카인즈와 해당 신문사에 일일이 접속한 뒤 주어진 기간 내에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모든 뉴스를 추출했다.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세 키워드로 검색했으며, 검색 결과에서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대상 기간에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된 기사 건수는 모두 1,602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기사 중 보수신문 874건, 진보신문 728건, 으로 보수신문들이 진보신문들보다 코로나19 이슈 보도에서 많은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

### (3) 분석 유목 및 조작적 정의

분석 기간 내 4개 신문사들의 코로나19 보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사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뉴스기사 유형은 스트레이트, 기획·특집, 인터뷰, 해설, 사설, 칼럼·논평, 기타로 분류하여 국내 주요 일간지들이 코로나19라는 위험 이슈에 접근하는 일차적인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분석 유목의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사를 분류하였다.

- ① 스트레이트 기사 : 스트레이트 기사는 기사의 의견이나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된 기사를 말한다.
- ② 기획·특집 기사 : 기획·특집 기사는 심층 보도할 사안에 대해 기사 또는 해당 신문사가 특별히 기획하여 보도한 기사를 말한다. 가령 ‘코로나19 특집’, ‘코로나19 기획’, ‘코로나19 기획/특집’ 등의 타이틀로 심층적인 분석 기사 등을 기획·특집 기사로 분류하였다.
- ③ 인터뷰 : 인터뷰는 취재 대상의 인물의 사진과 발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기사를 말한다.
- ④ 해설 : 해설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설명 또는 자료의 분석 등을 박스 처리하여 내보내는 기사를 말한다.
- ⑤ 사설, 칼럼·논평 : 이는 사안의 원인, 배경 해결책을 풀이하고 필자나 신문사의 의견이

나 주장이 담긴 의견 기사로 사실란에 고정적으로 보도되는 사실과 기명으로 보도되는 칼럼 또는 논평을 말한다.

- ⑥ 기타 : 위의 기사 유형 외에 만평, 사진 등으로만 보도된 기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 ⑦ 정보원 : 기자가 어떤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경우라도 자신의 관찰보다는 다른 정보원을 통하여 그 사건을 이야기하려 한다(Singer & Endreny, 1993/2003). 다양한 정보원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곧 뉴스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로도 이어지며, 특정 사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견해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설진아·남궁강, 2007).

이 연구에서는 정보원을 '뉴스의 취재를 비롯한 생산과정에서 정보(출처)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하고 청와대, 정부 부처 및 기관, 의학전문 집단 및 의료진, 지방자치단체, 정치인(정당), 공무원,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교육기관, 시민·사회·종교단체, 일반인(시민), 외신, 기업체(기업인), 기타로 분류하였다.

### 3) 프레임 분석 방법

뉴스 프레임은 언론이 뉴스 이용자들에게 현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용자들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인지하는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론이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도하는지는 중요하며, 특정한 관점에서 비롯된 언론의 보도가 뉴스 수용자의 사건 이해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프레임은 매우 유용한 뉴스 분석의 틀이 된다(임연희, 20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프레임을 아래와 같이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1) 형식적 프레임의 조작적 정의

형식적 프레임은 아이엔가와 사이먼(1993)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양정혜(2008), 이민규와 이예리(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형식적 프레임 분류를 활용하여 사건 중심 프레임과 주제 중심 프레임, 사건/주제 혼합 프레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프레임별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사건 중심 프레임(episodic frame)은 '특정 이슈를 보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나 특정한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개별적인 사례 또는 일회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뉴

스의 틀'이다. 따라서 '보도 형식이 각 사례와 관련하여 사건 사고에 대한 단순한 보고, 과정에 대한 기술적 차원의 설명, 실태에 관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주로 스트레이트 기사, 인터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② 주제 중심 프레임(thematic frame)은 '공공 이슈를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일반적인 결과나 조건 또는 통계적 증언 및 증거 등을 강조하는 뉴스의 틀'이다. 즉, 보도 형식이 다양한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각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진단 및 대안 제공이 포함된 기사가 이에 해당된다(유승현·황상재, 2006; 임양준, 2009). 이 연구에서는 해설, 사실, 칼럼(논평)이 여기에 포함된다.
- ③ 사건/주제 혼합 프레임은 '사건 중심, 주제 중심 프레임의 어느 한쪽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고 두 가지 유형이 혼재되어진 경우'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사건 발생을 묘사한 경우와 코로나19 해결책 모색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사건/주제 혼합 프레임으로 규정하였다. 탐사보도, 기획(특집) 등이 주로 여기에 포함된다.

## (2) 내용적 프레임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는 귀납적 프레임과 연역적 프레임의 장점이 서로 보완 관점에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거시적인 상위 프레임과 미시적인 하위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3개의 상위 프레임인 13개의 하위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상위 프레임으로는 선행연구(송해룡·조항민, 2015; 양정해, 2010; 이민규·이예리, 2012)에서 사용한 13개의 프레임을 재구분하여 유사한 맥락을 내포하고 있는 프레임끼리 범주화하여 사회적 프레임, 위기대처 프레임, 책임귀인(주체)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3개의 상위 프레임 중 사회적 프레임에는 사회구조 지적 프레임, 도덕적 평가 프레임, 이해 갈등 프레임, 정치적·경제적 문제 프레임을 하위 프레임에 포함하였다. 위기대처 프레임에는 대비태세 평가 프레임, 팬데믹 경고/우려 프레임, 개선점·대안제시 프레임을 하위 프레임에 포함하였다. 책임귀인(주체) 프레임에는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 중국 귀책 프레임, 중국 이외 국가 귀책 프레임, 병원(공공·영리) 귀책 프레임,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을 하위 프레임에 포함하였다.

상위 프레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사회적 프레임 : 이 프레임은 거시적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본적인 사회구조 지적, 도덕적 평가, 이해 갈등, 정치적·경제적 영향을 중점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프레임이다.

- ② 위기대처 프레임 : 이 프레임은 사회적 프레임과는 달리 미시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상황에서 실행되었거나 실행할 대처를 평가하고, 지역으로의 확산 감염 등 위기상황의 증폭을 경고 또는 우려하며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프레임이다.
- ③ 책임귀인주체) 프레임 : 이 프레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혼란과 피해의 책임 소재를 어느 집단, 국가로 돌리는지 알아보는 프레임이다. 이 같은 3개의 상위 프레임은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과 의제설정이 어디에 치중하는지 구분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위 프레임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사회구조 지적 프레임 :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의 근본 원인으로 기존에 구축된 사회구조의 부조리를 거론하며 비판하는 프레임을 말한다. 즉, 코로나19가 발병·확산된 원인과 발단,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의료계의 혼선 및 병원 시설의 문제점, 재난 시스템 부재, 초기 대응 실패, 정부 방역 문제점을 다룬 기사들이 이에 포함된다.
- ② 도덕적 평가 프레임 : 이 프레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해 주체들의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경우, 행동 규범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기술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밖에 자가 격리자들의 무단이탈, 코로나19 접촉자 또는 접촉 병원·교회·식당·시설 등의 방문을 숙인 환자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에 포함된다.
- ③ 이해갈등 프레임 : 이 프레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해 주체 간의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요소를 강조한 경우를 포함한다. 코로나19 발병·확산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 정부와 병원 간의 갈등이나 각종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부각하는 프레임으로써 가령, 박원순 서울시장의 광화문 광장 긴급 브리핑으로 인한 서울시와 종교단체와의 갈등 등이 이에 해당되며, 개인-개인, 개인-병원, 병원-정부, 정당-정부, 여당-야당의 갈등이 포함된다.
- ④ 정치적·경제적 문제 프레임 : 이 프레임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정책입안·수용 과정에서 갈등을 다루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국내외 개인 및 집단, 정부 조직의 경제적 변화를 다룬 내용으로 관광객 감소, 증시하락, 소비위축, 병원 휴원/폐원,

경기 및 문화행사 취소 등을 다룬 기사들이 이에 해당된다.

- ⑤ 대비태세 평가 프레임 :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의 대응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프레임. 또한 코로나19 대책본부 가동, 신종 감염병 예산 확대, 코로나19 치료 병원 및 격리자 생계지원 등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 ⑥ 팬데믹 경고/우려 프레임 : 코로나19가 확대되거나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 되는 것을 강조하거나 경계하는 프레임으로, 코로나19의 발병 소식, 감염자/사망자 발생률 상황 등 통계 또는 숫자, 경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의 심각성과 위험 상황 발생을 증점적으로 강조하는 기사들이 이에 해당된다.
- ⑦ 개선점·대안제시 프레임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위험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행되었거나 실행할 예정인 대처방안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병원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하거나 고쳐야 할 개선점·방안을 제시하는 프레임.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개인위생 강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등을 다룬 기사들이 이에 포함된다.
- ⑧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 이 프레임은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이 몰고 온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이 있는 주체를 지목하고 대처를 촉구하는 경우,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태의 책임 주체를 밝히려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가령, 문제 원인 프레임이 정부나 의료계의 정책 또는 시스템 부재 등을 포함하는 대신 이 프레임은 코로나19의 발병 또는 확산 원인과 대처 과정에 책임이 정부 또는 유관기관에 있는 것으로 지목하는 기사들이 이에 해당된다.
- ⑨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 : 이 프레임은 코로나19의 발병 또는 확산 원인과 대처 과정에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지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⑩ 중국 귀책 프레임 : 이 프레임은 코로나19의 발병 또는 확산 원인과 대처 과정에 책임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지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⑪ 중국 이외 국가 귀책 프레임 : 이 프레임은 코로나19의 발병 또는 확산 원인과 대처 과정에 책임이 중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것으로 지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⑫ 병원(공공·영리) 귀책 프레임 : 이 프레임은 코로나19의 발병 또는 확산 원인과 대처 과정에 책임이 병원에 있는 것으로 지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⑬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 : 이 프레임은 코로나19의 발병 또는 확산 원인과 대처 과정에 책임이 개인에 있는 것으로 지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4) 분석 방법 및 코더 간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양적인 내용분석 방법을 실시했다. 내용분석은 말이나 글로 표현된 인간의 의사활동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간의 문화적 배경, 맥락, 시간, 언어 등의 요소로 왜곡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애매한 내용에 대한 인상적인 판단보다는 수적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간명하게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이다(Krippendorff, 1980; Weber, 1985). 연구에서 신뢰도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 분석의 결과가 매번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것으로, 내용분석 분야 역시 연구자의 생각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Babbie, 2007; Bos & Tarnai, 1999).

이 연구에서는 신문들이 보도한 기사의 양적인 특성과 취재(정보)원, 프레임 분석은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병행 사용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한 코딩은 연구자와 대학원생(박사과정) 1명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앞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전체 1,602건의 기사 중 80개의 기사를 임의로 추출하여 뉴스의 유형과 정보원, 보도 태도 등을 서로 평가를 한 후 자료를 다시 교환하여 평가하는 방식의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홀스티(Holsti)의 검증공식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항목별 신뢰도 계수는 ①기사 유형 0.91 ②정보원 0.93 ③형식적 프레임 0.90 ④내용적 프레임 0.87로 나타났다. 추출된 데이터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 결과

### 1) 코로나19 보도의 정보(취재)원

〈연구문제 1〉은 코로나19 관련 보도의 정보(취재)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수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진보신문인 한겨레, 경향신문이 코로나19 보도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취재)원을 활용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신문사들 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취재)원을 ‘뉴스의 취재를 비롯한 생산과정에서 정보(출처)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하고 청와대, 정부 부처 및 기관, 의학전문 집단 및 의료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치인(정당),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교육기관, 시민·사회·종교단체, 일반인(시민), 외신, 기업체(기업인), 기타 등 13개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한 기사에 여러 유형의 정보(취재)원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복 집계하였다. 분석기간 내 보수와 진보신문의 코로나19 보도에서 나타난 정보(취재)원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mparison Analysis of Information Source Type

(Unit: Redundant Aggregation, %)

Information Source Type	Conservative Newspapers	Progressive Newspapers	All
Cheongwadae	82 (4.8)	74 (5.0)	156 (4.9)
Government department /Agency	509 (29.9)	419 (28.6)	928 (29.3)
Medicine group /Medical team	233 (13.7)	211 (14.4)	444 (14.0)
Local government	188 (11.1)	128 (8.7)	316 (10.0)
Public official	44 (2.6)	42 (2.9)	86 (2.7)
Politician (Party)	107 (6.3)	123 (8.4)	230 (7.3)
Expert(Professor, Researcher, etc)	136 (8.0)	104 (7.1)	240 (7.5)
Educational institution	83 (4.9)	56 (3.8)	139 (4.4)
Citizen-Society-Religion Association	5 (0.3)	22 (1.5)	27 (0.9)
Ordinary person(Citizen)	70 (4.1)	129 (8.8)	199 (6.3)
International press	28 (1.6)	23 (1.6)	51 (1.6)
Business (Businessman)	162 (9.5)	98 (6.7)	260 (8.2)
The others	54 (3.2)	37 (2.5)	91 (2.9)
Total	1,701 (100.0)	1,466 (100.0)	3,167 (100.0)

Note. The out of parenthesis numbers are number of times and redundant aggregation.

신문들의 코로나19 관련 기사에 나타난 정보(취재)원의 분석결과, 보수신문들은 정부부처 및 기관(29.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의학전문집단 및 의료진(13.7%), 지방자치단체(11.1%), 기업체(기업인)(9.5%),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8.0%)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문들은 정부부처 및 기관(28.6%)이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는 의학전문집단 및 의료진(14.4%), 일반인(시민)(8.8%), 지방자치단체(8.7%), 정치인(정당(8.4%),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7.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신문들은 보수신문들에 비해 일반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정당)의 정보(취재)원 활용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보수신문들은 진보신문들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 기업체(기업인) 등의 정보(취재)원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징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보도에서 진보성향의 신문들은 보수성향의 신문들보다 일반인(시민)들과 시민·사회·종교단체를 정보(취재)원으로 더 많이 활용한 반면, 보수신문들은 기업체(기업인)의 정보원을 진보신문들에 비해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2) 코로나19 보도의 형식적 프레임

〈연구문제 2〉는 코로나19 이슈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프레임은 무엇이며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형식적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Table 4. Comparison Analysis of Formal Frame

(Unit: the Number of Times, %)

Frame Types	First stage (Developmental stage)		Second stage (Spread stage)		Third stage (Interpandemic stage)	
	Conservative Newspapers	Progressive Newspapers	Conservative Newspapers	Progressive Newspapers	Conservative Newspapers	Progressive Newspapers
Episodic Frame	142 (74.0)	106 (71.6)	147 (71.7)	122 (68.9)	322 (67.5)	244 (60.6)
Thematic Frame	38 (19.8)	33 (22.3)	54 (26.4)	51 (28.8)	140 (29.4)	137 (34.0)
Episodic/The matic Frame	12 (6.3)	9 (6.1)	4 (2.0)	4 (2.3)	15 (3.2)	22 (5.5)
Total	192 (100.0)	148 (100.0)	205 (100.0)	177 (100.0)	477 (100.0)	403 (100.0)

Note.  $\chi^2 = 5.09$ ,  $df = 2$ ,  $p < .05$ .

분석결과, 〈Table 4〉에 제시된 것처럼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모두 사건 중심 프레임 기사의 비중이 전 단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보도량이 가장 많고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던 제3기(대유행기)에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3기에는 사건 중심 프레임에 이어 주제 중심 프레임과 사건/주제 혼합 프레임 순으로 기사를 많이 보도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분석 기간의 전체 기사량이 이 시기에 집중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 국면별 보도 기사의 형식적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신문들의 경우 제1기(발생기)에는 사건 중심 프레임(74.0%)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다음으로 주제 중심 프레임(19.8%)을 사용했으며 제2기(확산기)에는 사건 중심 프레임(68.9%)을 제1기보다는 적게 사용했으며 다음으로 주제 중심 프레임(29.4%)은 1기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기에는 사건 중심 프레임(67.5%), 주제 중심 프레임(29.4%) 순으로 사용했다. 전체적으로 보수신문들은 사건 중심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가운데 시기별로 비중이 낮아진 반면 주제 중심 프레임은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문들의 경우 제1기에는 사건 중심 프레임(71.7%)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다음으로 주제 중심 프레임(26.4%)을 높게 사용했다. 제2기에는 사건 중심 프레임(68.9%), 주제 중심 프레임(29.4%)를 사용했으며, 제3기에는 사건 중심 프레임(60.6%), 주제 중심 프레임(34.0%) 순으로 사용했다. 진보신문들도 낮은 시기보다 높은 시기에서 주제 중심 프레임의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주제 중심 프레임은 모든 시기에서 보수신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 중심 프레임의 사용 비중은 보수신문들이 진보신문에 비해 모든 시기에서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보수신문들은 사건 중심 프레임을 전 시기별로 진보신문들보다 많이 사용함으로써 일회적인 사건과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진보신문들은 주제 중심 프레임 비율이 전 시기에서 보수신문들보다 높게 나타나 코로나19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진단과 대안을 제공하는 기사를 좀 더 비중이 있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 3) 코로나19 보도의 내용적 프레임

〈연구문제 3〉은 코로나19 보도의 내용적 프레임에 관한 내용이다. 즉, 코로나19 이슈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내용적 프레임은 무엇이며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사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귀납적 프레임으로 거시적인 3개의 상위 프레임과 미시적인 13개의 하위 프레임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송해룡·조항민, 2015; 양정해, 2010; 이민규·이예리, 2012).

상위 프레임으로는 사회적 프레임, 위기대처 프레임, 책임귀인(주체) 프레임으로 설정한 후 국면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프레임으로는 사회적 프레임에는 사회구조 지적 프레임, 도덕적 평가 프레임, 이해갈등 프레임, 정치적·경제적 문제 프레임의 하부 프레임을 포함하였다. 위기대처 프레임에는 대비태세 평가 프레임, 팬데믹 경고/우려 프레임, 개선점·대안제시 프레임을 포함하였다. 또한 책임귀인(주체) 프레임에는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지방자치단체 귀책 프레임, 중국 귀책 프레임, 중국 이외 국가 귀책 프레임, 병원(공공·영리) 귀책 프레임,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을 포함하였다.

## (1) 국면별 상위 프레임 분석 결과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면별 상위 프레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Comparison Analysis of High Frame by Phase

Frame Types	First stage (Developmental stag)		Second stage (Spread stage)		Third stage (Interpandemic stage)	
	Conservative Newspapers	Progressive Newspapers	Conservative Newspapers	Progressive Newspapers	Conservative Newspapers	Progressive Newspapers
Social Frame	70 (36.5)	45 (30.4)	81 (39.5)	69 (39.0)	180 (37.7)	159 (39.5)
Crisis response Frame	73 (38.0)	66 (44.6)	76 (37.1)	63 (35.6)	201 (42.1)	161 (39.9)
Responsibility attribution (Responsible person) Frame	49 (25.5)	37 (25.0)	48 (23.4)	45 (25.4)	96 (20.1)	83 (20.6)
Total	192 (100.0)	148 (100.0)	205 (100.0)	177 (100.0)	477 (100.0)	403 (100.0)

Note.  $\chi^2 = 21.74$ ,  $df = 2$ ,  $p < .001$ .

<Table 5>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면을 1기부터 3기까지(발생기, 확산기, 대유행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보수와 진보신문사들이 보도한 기사의 상위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신문들의 경우 1기에서는 위기대처 프레임을 38.0%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프레임은 36.5%, 책임귀인(주체) 프레임은 25.5% 순으로 사용하였다. 2기에서는 사회적 프레임을 39.5%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위기대처 프레임을 37.1%, 책임귀인(주체) 프레임은 23.4% 순으로 사용하였다. 3기에서는 위기대처 프레임을 42.1%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프레임은 37.7%, 책임귀인(주체) 프레임은 20.1%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신문들의 경우 1기에서는 위기대처 프레임을 가장 많은 44.6%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프레임은 30.4%, 책임귀인(주체) 프레임은 25.0% 순으로 사용하였다. 2기에서는 사회적 프레임을 가장 많은 39.0% 사용하였으며, 위기대처 프레임을 35.6%, 책임귀인(주체) 프레임은 25.4% 순으로 사용하였다. 3기에서는 위기대처 프레임을 39.9%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프레임은 39.5%, 책임귀인(주체) 프레임은 20.6% 순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신문별 상위 프레임 중 위기대처 프레임은 보수와 진보신문 모두 1

기와 3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사회적 프레임은 2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의 발생기에 국내 신문들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을 많은 기사로 다루었으며, 코로나19의 확산기에는 코로나19라는 위험 이슈와 사회 구조적 맥락을 결부시키는 보도를 많이 하다가 다시 대유행기에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보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수와 진보신문의 국면별 상위 프레임 중 전 시기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프레임은 위기대처 프레임으로 나타났으며, 1기에서는 보수신문보다 진보신문이 6.6%p 많은 비중을 위기대처 프레임으로 사용했으며, 2기에서는 반대로 진보신문보다 보수신문이 위기대처 프레임을 1.5%p 많이 사용하였다. 기사양이 가장 많았던 3기에도 보수신문이 진보신문에 비해 위기대처 프레임을 2.2%p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신문들이 위기대처 프레임을 진보신문들보다 많은 비중을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데 있어서 대비태세 평가 프레임, 팬데믹 경고/우려 프레임, 개선점·대안제시 프레임 등의 하위 프레임을 더 많이 사용하여 보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 (2) 국면별 하위프레임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면별 하위 프레임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Comparison Analysis of Sub Frame by Phase

(Unit: the Number of Times, %)

Frame Types		First stage (Developmental stag)		Second stage (Spread stage)		Third stage (Interpandemic stage)	
		Conservative Newspapers	Progressive Newspapers	Conservative Newspapers	Progressive Newspapers	Conservative Newspapers	Progressive Newspapers
Social Frame	Social structure pointing out Frame	20 (10.4)	17 (11.5)	18 (8.8)	13 (7.4)	27 (5.7)	20 (5.0)
	Moral evaluation Frame	5 (2.6)	4 (2.7)	7 (2.0)	10 (5.7)	17 (3.6)	22 (5.5)
	Conflict frame	18 (9.4)	5 (3.4)	22 (10.7)	16 (9.0)	55 (11.5)	50 (12.4)
	Political-economic problem frame	27 (14.1)	19 (12.8)	34 (16.6)	30 (16.9)	81 (17.0)	67 (16.6)

Frame Types		First stage (Developmental stag)		Second stage (Spread stage)		Third stage (Interpandemic stage)	
		Conservative Newspapers	Progressive Newspapers	Conservative Newspapers	Progressive Newspapers	Conservative Newspapers	Progressive Newspapers
Crisis response Frame	Readiness assessment frame	29 (15.1)	20 (13.5)	39 (19.0)	17 (9.6)	80 (16.8)	39 (9.7)
	Pandemics warning/concern frame	24 (12.5)	29 (19.6)	16 (7.8)	23 (13.0)	48 (10.1)	72 (17.9)
	Improvement point:present alternatives frame	20 (10.4)	17 (11.5)	21 (10.3)	23 (13.0)	73 (15.3)	50 (12.4)
Respon sibility attribution (Respon sible person)	Government- related agency responsibility frame	17 (8.8)	12 (8.1)	17 (8.3)	11 (6.2)	36 (7.5)	13 (3.2)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y frame	10 (5.2)	1 (0.6)	9 (4.4)	4 (2.2)	12 (2.5)	6 (1.5)
	China Responsibility frame	11 (5.7)	5 (3.4)	11 (5.4)	4 (2.2)	14 (2.9)	7 (1.7)
	Non-China national responsibility frame	2 (1.0)	1 (0.6)	2 (1.0)	2 (1.1)	7 (1.5)	7 (1.7)
	Hospital responsibility frame	5 (2.6)	8 (5.4)	4 (2.0)	10 (5.6)	10 (2.1)	12 (3.0)
	Individua(citizen) responsibility frame	3 (1.6)	9 (6.1)	3 (1.5)	12 (6.8)	8 (1.7)	29 (7.2)
	The others responsibility frame	1 (0.5)	1 (0.6)	1 (0.5)	2 (1.1)	9 (1.9)	9 (2.2)
Total		192 (100.0)	148 (100.0)	205 (100.0)	177 (100.0)	477 (100.0)	403 (100.0)

Note.  $\chi^2 = 32.93$ ,  $df = 13$ ,  $p < .001$ .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면을 1기부터 3기까지(발생기, 확산기, 대유행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보도한 기사를 13개의 하위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국면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코로나19의 하위 프레임은 신문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프레임의 차이는 보도양이 가장 많은 시기인 3기에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별 코로나19의 국면별 하위 프레임의 변화는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보수신문의 경우 제1기에는 대비태세 평가 프레임을 15.1%로 가장 많이 사용하

였으며, 다음으로는 정치적·경제적 문제 프레임 14.1%, 팬데믹 경고/우려 프레임 12.5%, 사회구조 지적 프레임과 개선점·대안제시 프레임 각각 10.4%, 이해갈등 프레임 9.4%,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8.8% 순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제2기에는 대비태세 평가 프레임을 19.0%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정치적·경제적 문제 프레임 16.6%, 이해갈등 프레임 10.7%, 개선점·대안제시 프레임 10.3%, 사회구조 지적 프레임 8.8%,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8.3%, 팬데믹 경고/우려 프레임 7.8% 순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제3기에는 정치적·경제적 문제 프레임을 17.0%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대비태세 평가 프레임 16.8%, 개선점·대안제시 프레임 15.3%, 이해갈등 프레임 11.5%, 팬데믹 경고/우려 프레임 10.1%,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7.5%, 사회구조 지적 프레임 5.7% 순으로 사용하였다.

진보신문의 경우 제1기에는 팬데믹 경고/우려 프레임을 19.6%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대비태세 평가 프레임 13.5%, 정치적·경제적 문제 프레임 12.8%, 개선점·대안제시 프레임과 사회구조 지적 프레임 각각 11.5%,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8.1% 순으로 사용하였다.

제2기에는 정치적·경제적 문제 프레임을 16.9%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팬데믹 경고/우려 프레임과 개선점·대안제시 프레임 각각 13.0%, 이해갈등 프레임 9.0%, 사회구조 지적 프레임 7.4%,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 6.8%, 정부(유관기관) 귀책 프레임 6.2% 순으로 사용하였다.

제3기에는 팬데믹 경고/우려 프레임을 17.9%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정치적·경제적 문제 프레임 16.6%, 이해갈등 프레임과 개선점·대안제시 프레임 각각 12.4%, 대비태세 평가 프레임 9.7%,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 7.2%, 도덕적 평가 프레임 5.5% 순으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보수와 진보신문들의 코로나19 보도에 대한 하위 프레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수신문은 1기와 2기에 걸쳐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의 대응과 관련한 보도에 집중하였으며 기사양이 가장 많았던 3기에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정책입안·수용 과정에서 갈등을 다루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정치적 대처 능력, 경제적 변화 중 관광객 감소, 증시하락, 소비위축, 병원 휴원/폐원, 경기 및 문화행사 취소 등을 다룬 기사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수신문들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책임 주체를 정부(유관기관)에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음이 분석결과에서 드러났다.

진보신문의 경우 1기와 3기에는 팬데믹 경고/우려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즉, 코로나19가 확대되거나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 되는 것을 강조하거나 경계하는 보도를 많이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진보신문들은 특히 기사양이 가장 많았던 3기에는 코로나19의 발병 소식, 감염자/사망자 발생률 상황 등 통계 또는 숫자, 경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의 심각성과 위험 상황 발생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기사들을 많이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기에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정책입안·수용 과정에서 갈등을 다루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경제적 변화를 다룬 내용을 다룬 기사들을 많이 보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수신문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 주체를 정부(유관기관)로 지목하는 기사를 많이 보도한 반면, 진보신문들은 개인(시민) 귀책 프레임과 도덕적 평가 프레임을 많이 사용해 보도했다. 특히 기사양이 가장 많은 시기였던 제3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해 주체들의 행위가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기사와 코로나19의 발병 또는 확산 원인과 대처 과정에 책임이 개인(시민)에 있는 것으로 지목하는 기사를 보수신문들보다 훨씬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책임 주체에 관한 보도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전 시기에 걸쳐서 보수신문들은 정부(유관기관)와 지방자치단체를 책임 주체로 지목한 보도가 진보신문들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보신문들은 개인(시민)과 병원(공공·영리)을 책임 주체로 지목한 보도가 보수신문들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수신문들은 진보신문들에 비해 전 시기에 걸쳐서 중국을 책임 주체로 지목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보신문들은 1기를 제외하고 2기와 3기에서 중국 이외의 국가들을 책임 주체로 지목한 보도의 비중이 보수신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4) 코로나19 보도의 사례 분석: 이념적 성향에 따른 특징과 차이

〈연구문제 3〉의 코로나19 이슈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내용적 프레임은 무엇이며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신문들의 보도 사례에서 등장하는 상위 프레임(사회적 프레임, 위기대처 프레임, 책임귀인(주체) 프레임)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사회적 프레임 : 보수신문 ‘처벌’, 진보신문 ‘발견·치료’ 강조

코로나19의 위험 이슈를 다룬 신문들의 사회적 프레임과 관련된 보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진보신문들 중 한겨레는 ‘지금은 비난보다 발견·치료가 우선이다’(한겨레, 2020, 2, 21), 경향신

문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기꺼이 달려간 사람들…별은 그 곳에 뜬다’(한동일, 2020, 3, 13) 등의 기사에서 특징이 나타났으며, 보수신문들 중 동아일보는 ‘다시,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한다’(김형석, 2020, 3, 13), 조선일보는 ‘거짓말로 ‘방역’ 휘방하면 징역 5년도 가능... 코로나 관련 불법행위 어떻게 처벌받나’(정준영, 2020, 2, 29) 등의 기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즉, 진보신문들은 ‘비난보다 발검·치료’가 우선임을 강조한 반면, 보수신문들은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어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이해갈등을 다루는 보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수신문 중 조선일보는 ‘일(日)산케이 논설위원은 왜 아베한테 문제인 정권을 본받으라 했나’(이현승, 2020, 2, 18)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진보신문 중 한겨레는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사기 572건...“LG 협력사 과장인데...” 공장 가보니 허허벌판’(김민제, 2020, 2, 20)의 기사를 보도했다.

즉, 이해갈등적 프레임에서 보수신문은 국제적인 이슈를 다룬 점이 특징을 이루었고, 진보신문은 국내적인 이슈를 다룬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정부, 집단, 개인의 경제적인 손실에 중점을 둔 ‘경제적 영향 프레임’은 보수신문들 중 동아일보는 ‘금융 감염시킨 코로나...“장기화 땀 집값도 하락”’(김호경·유원모, 2020, 3, 16), 조선일보는 ‘여객기에 사람 없이 화물만... 대한항공 역발상으로 난다’(최지희, 2020, 3, 15) 등의 기사에서 나타났으며, 진보신문들 중 한겨레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전폭 지원을’(한겨레, 2020, 3, 15), 경향신문은 “개방형 통상국가 한국을 덮친 팬데믹”(서의동, 2020, 3, 18) 등의 기사에서 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경제적 변화와 손실에 대하여 보수신문들은 금융, 부동산, 운송 등의 분야의 경제적 손실 부분에 주목하여 보도를 많이 한 반면, 진보신문들은 코로나19 발생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 전반의 성찰과 반성을 주문하는 보도를 많이 한 것으로 분석됐다.

(2) 위기대처 프레임 : 보수신문, 정부 정책 비판, 진보신문, 마스크 대란 등 문제해결 집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 방안을 다룬 ‘위기대처 프레임’으로는 보수신문들 중 조선일보는 “사망자 줄이기로 정책의 무게중심 옮기자”(조선일보, 2020, 3, 13), 동아일보는 ‘재난소득 도입 급물살... 서울시, 117만 가구 최대 50만원 지원’(송충현·김하경·한상준, 2020, 3, 19) 등의 기사에서 나타났으며, 진보신문들 중 경향신문은 ‘돌봄노동자 잇단 ‘환자 감염’...“마스크라도 지원해주세요”’(김희진, 2020, 3, 15), 한겨레는 “마스크 3명 중 1명만 착용... 요양병원엔 생명을 지킬 안전벨트가 부족했다”(한겨레, 2020, 3, 14) 등의 기사에서 나타났다.

즉, 보수신문들은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시책에 집중한 반면, 진보신문들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밀접한 마스크 대란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코로나19의 예방 수칙 등 개선점과 대안제시를 다룬 사례로는 보수신문들 중 동아일보는 ‘격정 커진 수도권 집단감염… 정부 뒤늦게 “중증응급센터 운영”’(박성민·박창규·위은지, 2020, 3, 12), 조선일보는 “추경 늘리고 금리 인하해야”… 대한상의, 코로나 극복 긴급 건의’(연석은, 2020, 3, 12) 등의 기사에서 나타났으며, 진보신문들 중 한겨레는 ‘서울 민간콜센터 417곳 전수 조사…“예방조치 미비 땀 시설폐쇄 검토”’(서혜미, 2020, 3, 12), ‘경향신문은 “찜통에 찌면 1회용 마스크 재사용 가능” 충북대 약대 교수 해외학술논문 분석해 손쉬운 재사용법 공개’(김기범, 2020, 3, 12) 등의 기사에서 나타났다.

즉, 보수신문들은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형태의 기사를 주로 다룬 반면, 진보신문들은 마스크를 비롯한 민간시설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해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과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삼은 ‘팬데믹 경고/우려 프레임’의 사례로는 보수신문들 중 동아일보는 ‘코로나로 연일 텅빈 객석…연극-무용-독립영화 집단실업 위기’(김기윤·김재희, 2020, 3, 16), 조선일보는 ‘코로나 난리에 혈액 수급 비상?… 헌혈 기피하는 진짜 이유’(조강휘, 2020, 3, 17) 등의 기사에서, 진보신문들 중 경향신문은 ‘코로나19 시대의 삶’(송두울, 2020, 3, 16), 한겨레는 ‘가보지 않은 국면으로 진입한 자산시장’(김한진, 2020, 3, 15) 등의 기사에서 나타났다.

즉, 보수신문들이 진보신문들에 비해 훨씬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보도행태를 나타냈다.

### (3) 책임귀인(주체) 프레임 : 보수신문, “정부·지방자치단체, 중국 책임”, 진보신문, “개인, 병원, 종교·단체시설, 중국 이외 국가 책임”

코로나19와 관련된 신문들의 ‘책임 귀인(주체) 프레임’은 보수신문들 중 조선일보는 ‘이재명 “경기도 종교 집회 금지 검토”… 진중권 “정치말고 방역하라”’(오경목, 2020, 3, 8), 동아일보는 ‘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살인죄로 고발…성립 가능성은?’(윤우열, 2020, 3, 2) 등의 기사에서 나타났으며, 진보신문들 중 한겨레는 ‘코로나19에 불가능한 각자도생…‘공공보건의료 국가책임제’를’(김창엽, 2020, 3, 7), 경향신문은 ‘박원순, 검찰총장에 “신천지 이만희 체포하라” 촉구’(고영득, 2020, 3, 1) 등의 기사에서 나타났다.

즉, 보수신문들은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 보도를 많이 한 반면, 진보신문들은 개인과 신천지 등 종교·단체·집단시설에 책임을 묻는 보도에 집중

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종합 논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내 주요 신문들은 감염병 발생기보다는 확산기에, 또 확산기보다는 대유행기에 더 많은 기사를 보도했으며 전 시기별로 보수신문들은 진보신문들에 비해 더 많은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집중도를 보였다.

그러나 보수신문들은 진보신문들에 비해 갈등과 위협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많이 했으며, 이를 통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음이 사례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진보신문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마스크 수급문제와 예방·대처 차원의 보도를 많이 한 것으로 사례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보수와 진보신문들은 책임 귀인(주체) 프레임이 적용된 기사의 비중과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령, 보수신문들은 진보신문들에 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국(중국인)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기사를 더 많이 보도했으며, 진보신문들은 보수신문들이 비하여 중국 이외의 국가, 병원, 개인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 주체를 기사에서 더 많이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신문들은 다양한 정보(취재)원에 근거해 코로나19라는 위험 이슈에 대하여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사가 적었고,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중국(중국인)에 전가하는 프레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뉴스 이용자들에게 신뢰감을 덜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진보신문들은 해설과 사실을 통해 예방 및 대처 등 대응방안의 관점에서 보도한 기사의 비중이 높았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보도하려는 노력이 분석결과에서 드러났다. 즉, 보수신문들은 많은 기사에서 진보신문들과는 달리 갈등과 위협적 요소에 초점을 둔 보도가 많은 반면, 진보신문들은 많은 기사에서 보수신문들과는 달리 도덕적 평가 및 예방·대처 차원의 보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수신문들은 진보신문들에 비해 언론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독자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사례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위험 이슈 보도에 있어서 신문들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과 보도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시점인 2020년 1월 20일부터 질병의 발생, 확산, 대유행 상태를 보인 2020년 3월 20일까지 모두 61일 동안 국내 4개 신문의 코로나19 관련 보도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언론인들이 신종 감염병에 대하여 어떤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국내 종합일간지 중 보수적 성향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진보적 성향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으로 정하였으며, 이들 신문사에서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기사 총 1,602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개 신문을 보수와 진보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위험 이슈에 대하여 신문별 보도 프레임과 이념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신문별 보도의 관점과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의 위험 이슈 보도에서 보수신문들은 진보신문들에 비해 훨씬 많은 관심과 집중도를 보였다. 분석대상 기간 중 보수신문의 전체 기사량은 874건으로 진보신문의 728건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의 발생부터 감염·사망자의 추이와 정부 및 WHO의 공식발표 등을 고려하여 질병 국면을 총 3기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1기(발생기)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보수신문이 192건으로 진보신문의 148건보다 많았고, 제2기(확산기)인 2020년 2월 19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도 보수신문이 205건으로 진보신문의 177건을 앞섰으며, 제3기(대유행기)인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도 보수신문이 477건으로 진보신문의 403건보다 많은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위험 이슈 보도에서 보수신문들이 진보신문들에 비해 보도에 더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코로나19 위험 이슈 보도에서 활용한 정보(취재)원은 보수신문들과 진보신문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보수신문들은 정부부처 및 기관을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으며 다음으로 의학전문집단 및 의료진, 지방자치단체, 기업체(기업인),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순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반해 진보신문들은 정부부처 및 기관을 가장 많이 활용했으며, 다음으로는 의학전문집단 및 의료진, 일반인(시민), 지방자치단체, 정치인(정당),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신문사들은 보수신문들에 비해 일반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정당)을 정보(취재)원으로 많이 활용한 반면, 보수신문들은 진보신문들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기업체(기업인)를 정보(취재)원으로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 신문사들의 코로나19 보도의 형식적 프레임 중에서 보수와 진보신문 모두 사건 중심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기별로 보수신문들과 진보신문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보수신문들은 사건 중심 프레임을 전 시기별로 진보신문들보다 많이 사용함으로써 일회적인 사건과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진보신문들은 주제 중심 프레임 비율이 전 시기에서 보수신문들보다 높게 나타나 코로나19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진단과 대안을 제공하는 기사를 좀 더 비중이 있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면을 1기부터 3기까지(발생기, 확산기, 대유행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보수와 진보신문사들이 보도한 기사의 상위 프레임(사회적 프레임, 위기대처 프레임, 책임귀인(주체) 프레임)을 국면별로 분석한 결과, 보수와 진보신문의 국면별 상위 프레임 중 전 시기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프레임은 위기대처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신문들이 위기대처 프레임을 진보신문들보다 많은 비중을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상황에서 실행되었거나 실행할 대처를 평가하고, 지역으로의 확산 감염 등 위기상황의 증폭을 경고 또는 우려하며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섯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보도한 기사를 13개의 하위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국면별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하위 프레임은 신문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프레임의 차이는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보수신문들은 1기와 2기에 걸쳐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의 대응과 관련한 보도에 집중하였으며, 기사양이 가장 많았던 3기에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정책입안·수용 과정에서 갈등을 다루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정치적 대처 능력, 경제적 변화 중 관광객 감소, 증시하락, 소비위축, 병원 휴원/폐원, 경기 및 문화행사 취소 등을 다룬 기사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반해 진보신문들은 1기에는 코로나19가 확대되거나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 되는 것을 강조하거나 경계하는 보도를 많이 하였으며, 2기에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정책입안·수용 과정에서 갈등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경제적 변화를 주목하다가 3기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 되는 것을 강조하거나 경계하는 보도를 많이 하였다.

여섯째, 코로나19와 관련된 책임귀인(주체) 프레임 사용에 있어서 전 시기에 걸쳐 보수신문들은 정부(유관기관)와, 지방자치단체를 책임 주체로 지목한 보도가 진보신문들 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진보신문들은 개인(시민)과 병원(공공·영리)을 책임주체로 지목한 보도가 보수신문들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보수신문들이 진보신문들에 비해 전 시기에 걸쳐서 중국을 책임 주체로 지목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진보신문들은 1기를 제외하고 2기와 3기에서 중국 이외의 국가들을 책임 주체로 지목한 보도의 비중이 보수신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을 이루었다.

일곱째, 코로나19의 위험 이슈를 보도하는 신문별 사례분석 결과, 보수신문들은 사회적 프레임에 있어서 '처벌'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진보신문들은 '확산 방지를 위한 치료'를 자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각종 경제적 변화와 손실에 대하여 보수신문들은 금융, 부동산, 운송 등의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제적 손실 부분에 주목하여 보도를 많이 한 반면, 진보신문들은 코로나19 발생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 전반의 성찰과 반성을 주문하는 보도를 많이 한 것이 주된 특징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신문별 위기대처 프레임에 있어서 보수신문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한 기사를 많이 보도한 반면, 진보신문들은 마스크 대란 문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중점을 둔 기사를 많이 보도했다. 특히 보수신문들이 진보신문들에 비해 훨씬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보도행태를 보인 것으로 사례분석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위험 이슈 보도에 있어서 신문들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과 보도 내용의 사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맺음말: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주요 신문사들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취재)원,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할 수 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이 확산이 빠르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행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감염병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들은 일반적인 사건, 사고와는 달리 신중하고, 심층적이며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앞서 신종 감염병인 신종 플루, 메르스, 사스 등에서도 경험했듯이 언론은 초기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도의 영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질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심층적인 취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등 취재 보도 시스템의 확보와 더불어 탐사취재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뉴스 이용자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재난보도의 준칙을 잘 이행해야 하겠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분석 대상이 국내 4개 신문사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일간지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는데,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다른 보수와 진보언론의 보도 태도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했지만 더욱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 등의 보도 분석과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역 신문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보도 분석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위험 이슈가 발생한 지역의 신문들을 함께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코로나19가 다른 감염병에 비해 많은 지역사회와 국가로 확산되었고 유행기간이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기간을 더 늘려서 진행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더욱 보완하여 향후 연구과제로 삼는다면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전염성 질환의 언론 보도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방향과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 Ahn, E. (2016). *A Study on the Risk Reporting Frame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Focused on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Shinmu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Babbie, R. (2007).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11<sup>th</sup> ed.). Boston, MA: Cengage Learning
- Bennett, W. L. (2007).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7<sup>th</sup> ed.). New York, NY: Pearson.
- Bos, W., & Tarnai, C. (1999). Content analysis in empirical soci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1, 659-671.
- Choi, J. (2020, March 15). No one's on the plane, just cargo. It's Korean Air's reverse idea. *Chosun Ilbo*, p. 31.
- Choi, H. (2010). A Study on the ideological diversity of Korean newspaper reports: Focused on the analysis of reporting propensity on three major issues in six general daily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3), 400-444.
- Choi, Y., & Shin, K. (2012). Based on the case of melamine, character analysis of food crisis risk reports. *Korean Society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4(2), 207-241.
- Chosun Ilbo (2020, March 13). Let's shift the focus of the policy to 'reduction of deaths'. *Chosun Ilbo*, p. 10.
- Covello, V. D., & Slovic, P. (1986). *Risk communi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Emmitsburg, MD: National Emergency Training Center.
- Dudo, A. D., Dahlstrom, M. F., & Brossard, D. (2007). Reporting a potential pandemic: A risk-related assessment of avian influenza coverage in U.S. newspapers. *Science Communication*, 28(4), 429-454.
- Entman, R.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3), 51-58.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I.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berg, R., Sandman, M., & Sachsman, B. (1990). A question of quality: How journalists and news sources evaluate coverage of environmental risk. *Journal of Communication*, 40(4), 117-131.
-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 McCarthy, Trans.). Boston, MA: Beacon.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Han, D. (2020, March 13). The front line of life-saving, the people who were willing to run...Stars float there. *Kyunghyang Shinmun*. p. 1.
- Hankyoreh (2020, March 15). Declare special disaster zones in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provide rapid and full support. *Hankyoreh*. p. 5.
- Hankyoreh (2020, March 14). Only one of the three masks wears...Nursing hospitalslacked life-saving seat belts. *Hankyoreh*. p. 1.
- Hornig, S., Walters, L. & Templin, J. (1991). Voices in the news: Newspaper coverage of hurricane Hugo and the Loma Prieta earthquake. *Newspaper Research Journal*, 12(3), 32-45.
- Iyengar, S.,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 Jeong, J. (2020, February 29). Breaking quarantine with lies could result in a five-year prison term... How to be punished for corona-related illegal activities. *Chosun Ilbo*, p. 10.
- Jeon, J. (2015, July 8). Human-paged virus...threaten humanity. *Hankyoreh*, p. 5.
- Jung, S. (2020, March 12). 71 days after the initial report of Corona 19 to the Pandemics declaration...Only 52 days of landing in Korea. *Newsis*, p. 1.
- Jo, K. (2020, March 17). Blood supply and demand in the Corona frenzy? The real reason for avoiding blood donation. *Chosun Ilbo*, p. 1.
- Joo, Y., & Yoo, M. (2010). Analysis of news patterns of new types of diseases and chronic diseases in newspapers and TV new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4), 363-443.
- Jung, E. (2018). AIDS News Framing Analysis: Focused on Critical Health Journalism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4), 225-249.
- Kim, C. Y. (2020, March 7). Corona19, impossible self-sustaining...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ponsibility System. *Hankyoreh*, p. 1.
- Kim, D. (2020, April 28). 3rd group of journalists enacted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Rules'. *Journal of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p. 1.
- Kim, J., & Yoo, H. (2012). Effects of Acquisition Loss Frames and Examples on the Perception of Issues and Intention of Preventive Actions in Health Report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1), 5-30.
- Kim, H. (2020, March 15). An unexplored asset market. *Hankyoreh*, p. 16.
- Kim, H. (2020, March 13). Again, think about the national prestige of the Republic of Korea. *Donga Ilbo*, p. 29.

- Kim, H. (2010). *A Comparative Study on the Frame of Scientific Reports Related to Influenza A (H1N1): Focused on Chosun Ilbo and Kyunghyang Shinmun*.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2020, March 15). A series of 'patient infections' by care workers...“I need you to support the mask”. *Kyunghyang Shinmun*, p. 1.
- Kim, H., & Yoo, W. (2020, March 16). Corona infected with the financial... "In the long term, housing prices also fall". *Donga Ilbo*, p. 1.
- Kim, M. (2020, February 20). Corona 19 spread, 572 mask purchases...“I'm the head of LG's partner company.” When I went to the factory, I found myself in the middle of nowhere. *Hankyoreh*, p. 1.
- Kim, K. B. (2020, March 12). "If steamed in a steamer, disposable masks can be reused" Professor of Pharmacy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 Analysis of Overseas Academic Paper to Reveal Easy Reuse. *KyunghyangShinmun*, p. 17.
- Kim, K., & Kim, J. (2020, March 16). Empty seats with corona every day...Theater-Dance-Independent Film Group Unemployment Above. *Donga Ilbo*, p. 29.
- Kim, Y. (2006). Reflexivity on Risk and the Need of Communication = Risk Society and Risk Communication.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2), 192-232.
- Kim, Y., An, H., & Ham, S. K. (2015). Composition of Ferry Sewol disaster reports in the media: Focusing on analysis of frame, informant, and disaster reporting standards. *Collection of Korean Crisis Management*, 1(7), 5.
- Kim, W., Lee, C., Ha, Y., & Cho, H.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nd Factors of Risk Communication: Focused on structural analysis of nuclear risk communication through application of S-M-C-R-E model. *Speech and Communication*, 11, 80-123.
- Kim, Y., & Lim, Y. (2009). Press Arbitra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Mediation, Conflict Resolution between Media and Sourc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1), 182-204.
- Kim, Y. R. (2020). Status of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Regulation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Issues and Issues*, 1665.
- Kim, S. N. (2002). Frame analysis of TV news related to sales and prostitution.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6(2), 41-76.
- Ko, Y. D. (2020, March 1). Park Won-soon, Urging the Prosecutor General to Arrest Shin Chun-ji Lee

- Man-hee. *KyunghyangShinmun*, p. 1.
- Krippendorff, K. (1980).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Beverly Hills: CA: Sage.
- Leiss, W. (1996). Three phases in the evolution of risk communication practic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5(1), 85-94.
- Mileti, D. S., & Fitzpatrick, C. (1991). Communication of public risk: Its theory and its application. *Sociological Practice Review*, 2(1), 20-28.
- Oh, I. (2020, March 3). Corona 19's major keyword in Korea in numbers. *Medical Press*, p. 1.
- Oh, K. (2020, March 8). Lee Jae-myung, "Review of banning religious gatherings in Gyeonggi Province"...  
Jin Joong Kwon, "Prevent quarantine, not politics". *Chosun Ilbo*, p. 1.
- Park, J. (2007). An Investigative Study on the Composition of News discourse in Gotcha Journalism: Focused on 'In Lee Hae-Chan golf event' and 'Lee Myung-bak tennis event'. *Journalistic Science Research*, 7(1), 108-143.
- Park, K. (2011). Study on the Press Frame of the Four Rivers Project News: Focused on the Three Daily Newspapers, *Kyunghyang Shinmun*, *Dong-A Ilbo*, and *Hankook Ilbo*.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4), 5-26.
- Park, S., Park, C., & Wi, E. (2020, March 12). Mass infec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ve become more worrisome. The government belatedly said, "Operating a critical emergency center". *Donga Ilbo*, p. 1.
- Lee, J. (1996). A Study on the 'Risk' and 'Risk Report Issues' in Modern Societ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37(1), 62-88.
- Lee, H. (2020, February 18). Sankei Editorial Writer, Why did he tell Abe, Moon Jae-in regime to take a leaf out of him? *Chosun Ilbo*, p. 9.
- Lee, M., & Kim, S. (2006). A Comparative Study on the News Framing of Abolition of the Australian System: Focused on the *Chosun Ilbo*, *Kukmin Ilbo*, and *Hankyoreh Shinmun*. *Journal of the Korean Journal of Press Information*, 34, 132-160.
- Lee, M., & Lee, Y. (2012). A Frame Study on the Risk Report of Livestock Epidemic in Domestic Newspapers: Focused on Foot-and-mouth Disease Reports in Central and Local. *Journalistic Science Research*, 12(3) 378-414.
- Lee, Y. (2011). *A Study on the Livestock Infectious Risk Reporting Frame of Domestic Media: Focusing on the History of Relief*.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im, M., Ahn, C., Gam, K., & Yoo, H. (2010). Frame analysis reports for Park Geun-hye: Focused on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Journalistic Science Research*, 10(3), 457-498.
- Lim, Y. (2015). TV news coverage of the Ferry Sewol disaster. *Social Science Research*, 25(4), 179-201.
- Lim, Y.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News Frame in the Report of U.S. Imported Beef and Candlelight Demonstr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6(1), 108-147.
- Price, V., Tewksbury, D., & Powers, E. (1996, November). *Switching trains of thought: The impact of news frames on readers' cognitive response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Chicago, IL.
- Raul, S., Stockdale, G., & Rogers, M. (1987). How the news media operate in natural disasters. *Journal of Communication*, 37(3), 27-41
- Renn, O., Burns, W. J., Kasperson, J. X., Kasperson, R. E., & Slovic, P. (1992).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mpirical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137-160.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New York, NY: Longman.
- Seo, H. (2020, March 12). A survey of 417 private call centers in Seoul...“If preventive measures are not taken, consider closing the facility”. *Hankyoreh*, p. 9.
- Seo, U. (2020, March 18). Pandemics that hit Korea as an ‘open trade nation’. *KyunghyangShinmun*, p. 25.
- Seol, J., & Namgung, K. (2007). An Analysis of Sources of Television Diplomatic News on the Six-Party Talks. *Journal of Korean Broadcasting System*, 21(4), 69-10.
- Snow, D., & Benford, R. D. (1988).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19-217.
- So, Y. (2010). Institutionalization of risk communication. *Social Science*, 39(2), 27-63.
- Song, C., Kim, H., & Han, S. (2020, March 19). Disaster income is on the rise. Seoul City supports 1.17 million households up to 500,000 won. *Donga Ilbo*, p. 12.
- Song, D. (2020, March 16). Life in the 19th Corona Period. *Kyunghyang Shinmun*, p. 25.
- Song, H., & Jo, H. (201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isease-Related Risk Reporting in the Domestic Press: Focused on the Analysis of Broadcast News Reports on the Ebola Virus. *Collection of Korean Crisis Management*, 11(6), 45-68.

- Tuchman, G. (1978). *Making news*. New York, NY: The Free Press.
- Weber, R. P. (1985). *Basic content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 Yang, J. (2010). Constructing the Meaning of a Dangerous Society: Analyzing the way the local media framing the swine flu.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17, 169-212.
- Yang, J. (2008). Framing of Environmental Disaster News: A Case Study of the Oil Leakage in the Hubbase Fleet, a major daily in Korea.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9, 81-121.
- Yang, M. (2001). *Effect of receptor schema on media frame evalu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Yeon, S. (2020, March 12). Constructing the Meaning of a Dangerous Society: We need to increase the local media's pendulum and cut interest rates"...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 emergency proposal to overcome Corona. *Chosun Ilbo*, p. 10.
- Yoo, S., & Hwang, S. (2006). Exploring the News Frame of Portal Media. *Journal of Cyber Communications*, 20, 197-232.
- Yoon, W. (2020, March 2). Seoul City accused Lee Man-hee of murder...What are the possibilities? *Donga Ilbo*, p. 1.

최초 투고일 2020년 4월 4일  
 게재 확정일 2020년 7월 27일  
 논문 수정일 2020년 8월 4일

## 부록

- 고영득 (2020, 3, 1). 박원순, 검찰총장에 “신천지 이만희 체포하라” 촉구. <경향신문>, 1면.
- 김기범 (2020, 3, 12). “찜통에 찌면 1회용 마스크 재사용 가능” 충북대 약대 교수 해외학술 논문 분석해 손쉬운 재사용법 공개. <경향신문>, 17면.
- 김기윤·김재희 (2020, 3, 16). 코로나로 연일 텅빈 객석… 연극-무용-독립영화 집단실업 위 기. <동아일보>, 29면.
- 김달아 (2020, 4, 28). 기자 3단체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 <한국기자협회보>, 1면.
- 김민제 (2020, 2, 20).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사기 572건…“LG 협력사 과장인데…” 공장 가보니 허허벌판. <한겨레>, 1면.
- 김선남 (2002). 매매춘 관련 TV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41-76.
- 김여라 (2020). 감염병 보도 규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이슈와 논점>, 1665호.
- 김영욱 (2006). 위험사회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2권 2호, 192-232.
- 김영욱·안현의·함승경 (2015). 언론의 세월호 참사보도 구성: 프레임, 정보원, 재난보도준칙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1권 7호, 51-77.
- 김영욱·임유진 (2009). 언론-소스 간 갈등 해소와 ‘조정’ 기능 강화 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 연구. <한국언론학보>, 54권 1호, 182-204.
- 김원재·이창주·하연희·조항민 (2009).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인 및 요인 간 영향관계에 관한 탐색 연구: S-M-C-R-E 모델 적용을 통한 원자력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권, 80-123.
- 김종화·유홍식 (2012). 건강보도에서 획득·손실 프레임과 예시가 이슈의 지각과 예방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6권 1호, 5-30.
- 김창엽 (2020, 3, 7). 코로나19에 불가능한 각자도생…‘공공보건의료 국가책임제’를. <한겨레>, 1면.
- 김한진 (2020, 3, 15). 가보지 않은 국면으로 진입한 자산시장. <한겨레>, 16면.
- 김형석 (2020, 3, 13). 다시,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한다. <동아일보>, 29면.
- 김호경·유원모 (2020, 3, 16). ‘금융 감염시킨 코로나… “장기화 뎀 집값도 하락’’. <동아일보>, 1면.
- 김효경 (2010).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관련 과학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 (2020, 3, 15). 돌봄노동자 잇단 ‘환자 감염’…“마스크라도 지원해주세요”. <경향신문>, 1면.
- 박기수 (2011). 4대강 사업 뉴스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 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 등 3개

-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5-26.
- 박성민·박창규·위은지 (2020, 3, 12). 걱정 커진 수도권 집단감염… 정부 뒤늦게 “중증응급센터 운영”. <동아일보>, 1면.
- 박주현 (2007).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의 뉴스담론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해찬 골프사건”과 “이명박 테니스사건”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7권, 108-143.
- 서의동 (2020, 3, 18). ‘개방형 통상국가’ 한국을 뒀친 팬데믹. <경향신문>, 25면.
- 서혜미 (2020, 3, 12). 서울 민간콜센터 417곳 전수조사…“예방조치 미비 땀 시설폐쇄 검토”. <한겨레>, 9면.
- 설진아·남궁강 (2007). 6자 회담에 관한 텔레비전 외교 뉴스의 정보원 분석. <한국방송학보>, 21권 4호, 69-100.
- 소영진 (2010). 위험 의사소통의 제도화 방안. <사회과학>, 39권 2호, 27-63.
- 송두율 (2020, 3, 16). 코로나19 시대의 삶. <경향신문>, 25면.
- 송해룡·조항민 (2015). 국내 언론의 질병관련 위험보도에 관한 특성 연구: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방송뉴스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1권 6호, 45-68.
- 송충현·김하경·한상준 (2020, 3, 19). 재난소득 도입 급물살… 서울시, 117만 가구 최대 50만 원 지원. <동아일보>, 12면.
- 안은영 (2016).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위험보도 프레임 연구-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문석 (2001). <수용자스키마가 미디어프레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정혜 (2008). 환경재난 뉴스의 프레임링: 국내 주요 일간지의 ‘허베이서 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 보도사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9호, 81-121.
- 양정혜 (2010). 위험사회의 의미 구성하기: 국내 언론의 신종플루 프레임링 방식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7호, 169-212.
- 연석은 (2020, 3, 12). “추경 늘리고 금리 인하해야”… 대한상의, 코로나 극복 긴급 건의. <조선일보>, 10면.
- 오경묵 (2020, 3, 8). 이재명 “경기도 종교 집회 금지 검토”… 진중권 “정치말고 방역하라”. <조선일보>, 1면.
- 오인규 (2020, 3, 3). 숫자로 보는 국내 ‘코로나19’ 주요 키워드. <의학신문>, 1면.
- 유승현·황상재 (2006). 포털미디어의 뉴스 프레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통권 20호, 197-232.
- 윤우열 (2020, 3, 2). 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살인죄로 고발...성립 가능성은? <동아일보>, 1면.
- 이민규·김수정 (2006). 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4호, 132-160.
- 이예리 (2011). <국내 언론의 가축 전염병 위험 보도 프레임 연구: 구제역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민규·이예리 (2012). 국내 신문의 가축 전염병 위험 보도에 대한 프레임 연구: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제역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378-414.
- 이정춘 (1996). 현대사회의 '위험'과 '위험보도의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37권, 62-88.
- 이현승 (2020, 2, 18). 일(日)산케이 논설위원은 왜 아베한테 문재인 정권을 본받으라 했다. <조선일보>, 9면.
- 임미영·안창현·감규식·유홍식 (2010). 박근혜에 대한 보도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권 3호, 457-498.
- 임양준 (2009).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촛불시위 보도에 나타난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6호, 108-147.
- 임연희 (2015).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25권 4호, 179-201.
- 정성원 (2020, 3, 12). 코로나19 최초보고 후 '팬데믹' 선언까지 71일...국내 상륙 52일만. <뉴스시스>, 1면.
- 전정윤 (2015, 7, 8). 인간이 호흡한 바이러스...인류를 위협하다. <한겨레>, 5면.
- 정의철 (2008). 에이즈 뉴스 프레임 분석: 비판적 헬스저널리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225-249.
- 정준영 (2020, 2, 29). 거짓말로 '방역' 훼방하면 징역 5년도 가능... 코로나 관련 불법행위 어떻게 처벌받나. <조선일보>, 10면.
- 조강휘 (2020, 3, 17). 코로나 난리에 혈액 수급 비상?... 헌혈 기피하는 진짜 이유. <조선일보>, 1면.
- 조선일보 (2020, 3, 13). '사망자 줄이기'로 정책의 무게중심 옮기자. <조선일보>, 10면.
- 주영기·유명순 (2010). 신문·TV 뉴스의 신종 출몰형 질환 및 만성질환 보도 패턴 분석.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363-443.
- 최윤형·신경아 (2012). 식품위위험 보도의 특징 분석 멜라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4권 2호, 207-241.

- 최지희 (2020, 3, 15). 여객기에 사람 없이 화물만... 대한항공 역발상으로 난다. <조선일보>, 31면.
- 최현주 (2010).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6개 종합일간지의 3개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 성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400-444.
- 한겨레 (2020, 3, 15).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진폭 지원을. <한겨레>, 27면.
- 한겨레 (2020, 3, 14). '마스크 3명 중 1명만 착용'...요양병원엔 생명을 지킬 안전벨트가 부족했다. <한겨레>, 1면.
- 한동일 (2020, 3, 13).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기꺼이 달려간 사람들...별은 그 곳에 뜬다. <경향신문>, 1면.
- 허용강·차수연·서필교·김소영·백혜진 (2015). 감염병 보도 지침에 따른 에볼라 바이러스 언론보도 내용분석: 국내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2권, 75-113.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홍성태 (역) (200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이윤희 (역) (1991). <포스트 모더니티>. 서울: 민영사.
- Singer, E., & Endreny, P. M. (1993). *Reporting on risk: How the mass media portray accidents, diseases, and other hazards*.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송해룡 (역) (2003). <위험 보도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박주현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이 연구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언론의 이념성향과 프레임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감염 환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19 위험 이슈에 관한 국내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기사의 정보(취재)원, 프레임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4개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국면별 보도 기사의 특성과 정보(취재)원, 형식적 프레임, 내용적 프레임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한 분야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에 대하여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뉴스 보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코로나19 보도 패턴을 보면 분석 대상인 보수성향의 신문과 진보성향의 신문 모두 형식적 프레임 중에는 사건 중심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이러한 기사를 스트레이트 형태로 보도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기사 정보(취재)원은 신문들 모두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진보성향의 신문들은 보수성향의 신문들보다 일반인(시민)들과 시민사회종교단체를 정보원으로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업체(기업인)의 정보원 활용에 있어서는 보수성향의 신문들이 진보성향의 신문들보다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보수신문들은 다양한 정보(취재)원에 근거해 코로나19라는 위험 이슈에 대하여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사가 적었고,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국에 전가하는 프레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뉴스 이용자들에게 신뢰감을 덜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진보신문들은 해설과 사실을 통해 예방 및 대처 등 대응방안의 관점에서 보도한 기사의 비중이 높았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보도하려는 노력이 분석결과에서 드러났다. 즉, 보수신문들은 많은 기사에서 진보신문들과는 달리 갈등과 위험적 요소에 초점을 둔 보도가 많은 반면, 진보신문들은 많은 기사에서 보수신문들과는 달리 도덕적 평가 및 예방·대처 차원의 보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수신문들은 진보신문들에 비해 언론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독자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사례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위험 이슈 보도에 있어서 신문들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과 보도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어:** 코로나19, 프레임, 이념성향, 신종 감염병